



관덕정 '작별하지 않는다' 전국 시민 대합창 제주 등 전국 13개 시민합창단 단원 400여 명이 20일 오전 제주시 원도심 관덕정 앞에서 임정현 예술감독의 지휘로 '작별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제주4·3의 기억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4·3의 역사적 현장 중 한 곳인 관덕정에서 진행한 이번 합창은 전남 저널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회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 위촉곡으로 초연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을 위해 이뤄졌다. 합창 영상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 각명비와 관덕정에서 잇따라 촬영했다. 글·사진·진선희기자

제주목 관아 빛으로 더 가깝게 즐긴다

도,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주 신화 주제 미디어아트
국가유산 활용 야간 콘텐츠
작년엔 24일간 9만여명 찾아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제주목 관아. 제주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며 복원한 이곳에 다시 빛들이 반짝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이달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펼쳐는 '제주목 관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펄롱펄롱 빛 모드락 2'를 통해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펄롱펄롱 빛 모드락'은 제주어로 반짝반짝을 뜻하는 '펄롱펄롱'과 모두를 뜻하는 '모드락'을 합친 말이다.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빛이 모여 반짝이는 순간을 모두가 즐긴다는 의미로 지었다.

첫해 탐라순력도와 제주의 국가유산을 주제로 빛은 제주목 관아

미디어아트에는 24일 동안 9만2792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제주목 관아를 찾은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국가유산을 새롭게 경험했다.

올해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제주를 대표하는 야간 문화 공간을 만들고 원도심에 활력을 더한다. 이번 주제는 제주 신화. '1만 8천 신들의 섬, 유산의 빛으로 물들다'란 이름을 내걸고 국가유산과 제주 사람들의 삶을 미디어아트



제주목 관아 미디어아트 홍보 포스터(부분). 제주도 제공

로 풀어낸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 기간에는 제주목 관아를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할 때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감굴박물관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기획전 부문 수상=지난해 선보인 개관 20주년 특별 기획 '감굴 오감체험전-감굴판타지아'가 지난 18일 대전에서 열린 2026년 박물관·미술관 박람회에서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기획 전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전시는 '감굴과 만나는 오감의 즐거움'을 주제로 지역 예술가, 전문가와 협업해 관람객이 감굴의 다양한 감각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박물관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전시가 끝난 뒤 상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개관 10주년 관람객 이벤트=개관 10주년 특별기획전과 김창열 화백의 예술 세계를 보다 깊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달 24일 미술관을 방문하는 50번째 관람객을 시작으로 100번째, 150번째 등 50명마다 해당 관람객에게 현재 전시 중인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 '파리의 화가 김창열' 도록을 증정한다.

▷제47회 만덕제 여성 제관 2명 제주시도민 공모=1980년 만덕제를 시작한 이래 제관 공모는 이번이 처음. 모집 대상은 공고일(2026년 9월 16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여성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본 당첨자 2명과 예비 후보자 3명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최종 선발된 사람은 10월 20일 사전 제례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10월 21~23일 사라봉 모충사에서 진행되는 예행연습을 거쳐 10월 24일 본행사인 제47회 만덕제 봉행·김만덕상 시상식에 제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주 민요와 관악 창작 만남
내년 제6회 관악작곡콩쿠르
40세 미만 젊은 작곡가 대상

(사)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세계 각국 젊은 작곡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열리는 '2027 제6회 제주 국제관악작곡콩쿠르' 모집 요강을 확정했다.

20일 조직위에 따르면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는 제주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제주 전통과 관악 창작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관악 레퍼토리를 발굴하려는 취지로 2021년부터 치러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총회에서 신규 분야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콩쿠르 입상작은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공연 등에서 연주되고 있다.

제6회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는 제주 노동요인 망건 짜는 소리, 멜 후리는 소리, 노 젓는 소리(이 어도사나), 원이자랑 등 1곡 이상을 주제로 미발표 관악 합주곡을 창작해야 한다. 참가 자격은 만 40세 미만(1986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국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별도 참가비는 없다.

출품작은 2027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이후 2월 18일 악보 심사를 거쳐 결선 진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결선은 3월 18일 연주 심사자 진행하고 심사위원은 국내외 저명 작곡가와 지휘자 등 7명 이내로 꾸린다. 상금은 1위 6000달러, 2위 4000달러, 3위 2000달러다.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숙박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관악제 공식 누리집 참고.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영화 '읍세선'.

영화觀 읍세선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의 한 편에는 늘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

좋아한다는 마음과 함께 태어난 그 마음은 인젠가는 나도 같은 방식으로 보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먹고 자라난다. 무력무력 성장하는 그 마음은 강하고 무력하다. 희망으로 커졌지만 절망으로 순식간에 작아지는 일을 반복하며 초심의 순도를 덧칠하며 변형된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반복되는 질문에는 슬프게도 정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타인의 정답을 오답이라 확신하는 순간 내 사랑이 가진 모든 아름다움들은 폭력이 되어 버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영화 '읍세선'은 사랑 받기 위해 주문의 힘을 빌린 한 남자의 이야기다. 니키(인디 네버레티)를 짝사랑하던 베어(마이클 존스턴)는 차마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곁을 맴도는 일만 반복하는 청년이다. 니키가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사주기 위해 골동품 가게를 찾은 베어는 '원 위시 월로우'라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원 위시 월로우'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 하나의 소원만 빌 수 있음 2. 한 번 빈 소원은 취소도 변경도 할 수 없음. 베어가 빈 소원은 '니키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세요'이고 소원은 거짓말처럼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두가 우려하듯 어떤 사랑도 그리 쉽거나 만만할 리 없음의 지옥도가 소원의 성취 위로 어지럽고 지독하게 내려앉는다.

AI시대에 통용되지 않을 속담이 있다면 아마도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일 것이다. 고전적으로 순애보의 지속력을 긍정하던 이 말은 요즘 시대에는 폭력적인 스토킹으로 제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때론 사랑에는 마음의 실패가 여러 차례 필요하다. 고백까지의 망설임, 거절 뒤의 아쉬움, 그럼에도 여전히 식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시간의 필요까지 사랑은 대상에게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한 인간을 사랑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한 사람으로 만든다.

'읍세선'의 베어는 고백조차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덜컥 손에 쥔 마법의 힘을 빌리고자 한 우를 저지른 이다. 만약 그가 더 망설이고 충분히 주저하고 오래 고민한 뒤 니키에게 고백했다면 그 대답이 거절이더라도 베어는 다음 사랑과 지나간 사랑 모두에 성숙하게 응대할 수 있는 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조건과 갖가지 방법 사이를 기어코 뚫고 나오는 마음의 싸이아 말로 나무가 될 사랑의 기초일 테니 말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맛의 여행이 함께하는 남도 힐링 여행!

남도맛기행

남도의 맛, 남도의 맛, 특별한 주말여행!

파나저! 지금, 남도로~

월출산 녹차밭

가우도 솔향다리

남미루사

선운사

연탄불고기 한정식

한우 키조개 산합

통탄장이 정식

문국 함사르슴지 (해방명차)

1일차

- 제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월출산 녹차밭
- 중식 (연탄불고기 한정식)
- 가우도 솔향다리
- 남미루사
- 석식 (한우 키조개 산합)
- 제주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 호텔 (조식)
- 고창 선운사
- 중식 (통탄장이 정식)
- 고창 박원농장
- 문국 함사르슴지 (해방명차)
- 제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여행요금 (1인 기준)

2인1실	3인1실	4인1실
449,000원	445,000원	440,000원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유류세 포함)
- 호텔료
- 전일정 식사료
- 입장료
- 차량료
- 가이드비
- 여행자보험

여행일 10월 17일, 24일 (토, 2박)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가을, 바깥을 계절! 함께 나누는 특별한 가을 단풍여행

가을 명품 단풍여행

(주말 1박2일)

가을의 맛, 가을의 향연

다구 + 청송 주왕산 + 포항

주산지

주왕산 국립공원

호미곶 해맞이 광장

국립묘지 일원인 가옥터

한호공원 스페이스워크

1일차 10/31(토)

- 제주공항 출발 (07:10) → 대구공항 도착
- 주산지 왕버들 단풍산책
- 주왕산 국립공원 (대전사 + 노루용추계곡 + 학소대)
- 석식
- 포항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11/1(일)

- 호텔 체크인 후 (조식)
- 호미곶 해맞이 광장
- 국립묘지 일원인 가옥터
- 중식
- 한호공원 스페이스워크 관광
- 대구공항 출발 (18:15)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여행요금 (1인 기준)

2인1실	3인1실	4인1실
449,000원	445,000원	440,000원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유류세 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10월 31일(토, 1회)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가을의 절정, 지금 떠나세요!

가을 단풍여행

(주말 1박2일)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내장산+선운사

내장산

선운사

정음 평화차거리

장성호 수변공원

고창 고인돌

문국 함사르슴지

1일차

- 제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내장산 단풍
- 중식
- 정음 평화차거리 (가을 개장만)
- 장성호 수변공원
- 석식
- 제주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2일차

- 호텔 (조식)
- 고창 선운사 단풍
- 중식
- 고창 고인돌 (오전만 입장만)
- 문국 함사르슴지 (해방명차)
- 제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여행요금 (1인 기준)

2인1실	3인1실	4인1실
449,000원	445,000원	440,000원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유류세 포함), 호텔료,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가이드비, 여행자보험

출발일 10월 31일, 11월 7일 (토, 2박)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바다와 역사, 감성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주말 1박2일 낭만여행

부산 + 울산 + 경주

바다, 그리고 낭만이 있는 도시 부산·울산·경주를 떠나세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대왕암 (출렁다리 + 해안 산책)

천년의 역사도시 경주

제1일 제주 → 김해 → 울산

- 제주공항 출발 → 김해공항 도착
- 중식
- 장생포 모노레일 →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 대왕암 (출렁다리 + 해안 산책)
- 울산대교 전망대
- 석식
- 울산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제2일 울산 → 경주 → 부산 → 제주

-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 불국사
- 대왕암 + 천마총
- 중식
- 창성대 + 동부사지
- 항리단길 자유여행 및 카페
- 부산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후 해산

여행요금 (1인 기준)

2인1실	3인1실	4인1실
449,000원	445,000원	440,000원

포함내역

- 왕복항공료 (유류세 포함)
- 호텔료
- 전일정 식사료, 입장료, 차량료, 여행자보험

출발일 11월 7일, 21일, 28일 (토, 3박)

20명 이상 모객시 출발

한정 좌석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제주자유여행사

문의 064-744-9111